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홍 달아기\* · 채옥희 · 이남주\*\*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가정아동복지학 전공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Hong, Dalahgi\* · Chae, Ock Hi · Lee, Nam Ju\*\*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Iksan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tegrat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special needs and situations into family living and Korean social groups. Nowaday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According to these changes, there are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such as cultural conflicts, domestic violenc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and bad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because of misunderstandings. These social problems can be alleviated by a family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is program was developed in order to help immigrant women in their initial settlement and to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on mutual culture of family living. The contents of the program consist of how to live a harmonious, understanding and hopeful family life. The method of evaluation is to survey the immigrant women's self esteem and conduct an interview.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re to promot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Also the family agreed to promote favorable sentiments toward each other. The program also had meaningful consequenc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mmigrants' realistic expectation of marriage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I am hopeful that more elaborate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ll be develope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with appropriate education and support systems.

**Keywords** : family integration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y,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women

###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의 흐름은 초기와는 다르게 농촌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제결혼의 모습에서 도시근로자와 재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제결혼의 양상이 모습을 달리함에

따라 이들이 형성한 다문화 가정의 삶의 모습과 갈등원인, 가정문제의 종류 등이 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들의 지위나 삶의 경험이 달라지며 그들이 본국에서 가졌던 지위는 그들의 삶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Corresponding author: Hong, Dalahgi

Tel: 063-850-6652, Fax: 063-850-7136

E-mail: dalhong@wku.ac.kr

이처럼 앞으로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나 대처방식은 결혼이민자의 삶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체류 외국인의 인구 구성을 보면 세계인이 한국사회로 이주해오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민은 몇몇 국가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다인종화 사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다(한건수, 2008). 전체 국제결혼사례 중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76.1%이며, 국제결혼의 건수는 2008년 약 36,204건으로 2000년도의 11,605건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총 결혼건수의 11.1%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 이혼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11,255건으로 전년도 보다 29.8%증가 하였고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전년대비 11.1%증가를 보이고,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39.5%증가(통계청, 2009)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남성간의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한 가정의 핵은 부부인데 그 부부 중 한명이 결혼이민자이므로 이들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의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적응과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일차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노력도 있어야 하며,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남편의 노력을 강조하고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을 지적한 연구(김오남, 2006; 윤형숙, 2004; 추현화 외, 2008; 홍달아기, 채옥희, 2006)들을 볼 때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부부적응과 가족적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적 역할은 결혼이민여성들의 남편이 중요하다는 것(김민경, 2009)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결혼인 남성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음(추현화 외, 2008) 반면 사회적 지지가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나 가족지지는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장운정, 2007)을 미친다고 하여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국인 남편과 가족은 문화차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울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국제결혼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의 의식이나 자원은 그대로 둔 채 이주여성만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며 국제결혼여성과 남편, 가족전체를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장운정,

2007)고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문화도 다르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결혼의 동기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채옥희, 홍달아기, 2008). 특히 이들 다수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김오남, 2006),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와 가족의 무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부갈등의 주요요인으로 문화적 갈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이들 갈등해결을 위해 한국어습득과 한국문화이해에 초점을 두어왔고 다문화 가정에는 한국문화만 존재하고 남편들이나 가족들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가족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김희주, 은선경, 2007)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출신국가와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무관심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갈등의 주요요인이자 소통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으로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가족들의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작업이 시급(김이선 외, 2006)하다고 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결혼부부교육도 여성만의 한국적응을 위한 문화체험과 의사소통에 관한 언어교육이 대다수(추현화 외, 2008)라고 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편중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가족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는 실로 은 기간 내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가족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결혼이민여성 당사자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접근하기 쉬운 체계적 프로그램이 부족하였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문화는 물론 이주여성의 문화도 포괄해야 하며 결혼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친척들에게도 다문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문화적 관점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과정착을 위해서 가족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면서 공동의 학습과 활동 기회를 가짐으로써 결혼이민여성들과 그 가족원간의 적응, 친밀감 증진,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족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족통합교육 활동은 온 가족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색함을 줄이고 실제생활에서의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가족 간의 모습을 통해 집단 상담과 유사한 자기통찰과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가족 간의 신뢰와 소중함도 증진되리라고 사료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통합교육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관련 교육프로그램은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부모자녀교육, 예비배우자 및 배우자교육(서형순, 2009)등이 있으며, 이들 각 대상을 통합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2006)과 농촌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2008)로 개발이 미미한 상태이다. 2006년도의 가족통합교육의 내용을 보면 부부, 시부모, 자녀 의 대상별 교육과 가족전체대상 교육으로는 인간관계훈련, 상담교실, 나라별 언어교육 등으로 상담교실은 가족공동강의로 되어 있다. 가족협동 활동은 음식 만들기, 지역사회탐방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진행방식은 1박 2일로 50분을 단위로 편성이 되었으며 교육방법은 활동과 실습을 교육내용에 따라 편성하였다.

농촌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프로그램(2008)은 농사문화에 대한 차이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설계와 대화법, 가족편지, 칭찬릴레이 등 가족이해와 친밀감 증진을 위한 작업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대상별 부부, 시부모, 손자녀를 분리하여 교육하도록 계획되었다. 총 5회기로 1회기는 관계형성과 마음열기를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친밀감게임, 2회기는 문화이해를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와 농사문화 이해하기 등, 3회기는 가정경제 점검과 10년 후 가족모습 탐색, 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4회기는 부부개별프로그램과 손자녀 개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부부교육에는 부부대화탐색과 대화법, 손자녀 교육에는 시부모와 손자녀의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나무 그리기, 풍선아트 등으로 구성하였고 5회기는 가족유대감 강화를 위해 마사지 경연대회, 가족화, 가족편지낭송, 칭찬 릴레이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밖에 교육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통역원을 동반한 가족상담과 자녀와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 부부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가족 다문화체험 등의 내용(서형순, 2009)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가족통합지원 교육내용은 의사소통 시 위기대처전략, 결혼이민자가족 간 교류, 엄마나라.부인나라 이해, 확대가족대상교육기회 제공 등을 지원(오윤자, 2007)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은 위의 두 연구가 있으며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사는 가족들의 가족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를 밝히고 있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순미(2006)는 개인의 적응 문제(의사소통 능력 부족, 문화 격차 등), 가족 내 적응 문제(부부갈등 및 시부모와의 부적응 등), 자녀양육 등 이들의 적응에 대한 사회적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들 가족을 위해 언어, 가족생활, 문화적 격차해소를 위한 적응지원프로그램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심층인터뷰에 의한 연구(이태옥, 2006)에 의하면 이주여성과 남편, 가족들의 관계는 현재는 갈등적 모습을 보이나 가족관계의 친밀성은 이들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가족 간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증진을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가족 간의 친밀성 증진에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리핀출신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주, 은선경, 2007)에서는 가족문화의 차이로 인해 남편과 갈등을 겪고, 본국에서는 가사분담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가족이 항상 함께하는 가족중심생활인데 반해 한국의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자신들을 통제하려하는 점과 한국사회의 술 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결혼생활을 힘들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가족들은 나름대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일방적인 동화요구와 문화적 혼성성에 대한 수용의 제한으로 그 어려움이 배가되고(김이선 외, 2006) 있어서 가족 간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을 빈곤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피해자로만 보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의미, 내용,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위자임을 인식해야(윤형숙, 2004b)함을 생각할 때 이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성적서비스의 교환이라는 관점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제결혼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사회적인 무언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onstable, 2003; Simons, 2001). 다문화 사회가 사회문화적 코드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가족으로서, 이웃, 친구 등 사회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일차적 환경인 가족원간의 문화적 차이와 가치, 의사소통 등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가족통합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사회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향후 국제결혼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과 적응이라는 단순통합모형을 넘어서 초국적인 가족형성이 한국의 가족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윤형숙, 2004a).

국제결혼의 어려움이 많은 것과 비례해 다문화가정의 이혼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혼건수가 2002년도에는 전체이혼의 1.2%였는데 2009년도에는 9.7%(통계청, 2009)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6세 이하는 57.1%, 만 7~12세는 32.2%로 2008년 약 58,007명(e나라통계, 2009)이다. 이러한 통계는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일부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체 및 장애, 학습능력 저하, 또래집단따돌림 등이 사회적응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가족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미래의 성숙한 국민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언어교육과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과 수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의 재문화화와 함께 이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와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나아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회분위기 등이 전제될 때에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김이선 외, 2006)이라고 보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은 단순한 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 국민으로서 자녀를 통해 향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요 자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을 통해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해줌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스스로가 지역인적자원으로서 적극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대상별 관련연구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가족관계별로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 가족구성원 개개인 및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정착화를 돕고 이들 가족 전체의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족통합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의 탐색을 위해 그동안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부관계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들은 많은 수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외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이라는 밀접한 공간에서 갈등을 겪으며 생활한다. 게다가 한국남성들의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고맥락적 특징과 자발적으로 아내와 바깥일을 공유하고픈 마음도 없고 그 필요성도 자각하지 못하고 설명할 능력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 특히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로써, 아내로서 보다는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사고는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생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남편자신의 경제생활기반이 약하고 아내와 나이차이가 많아 젊은 아내에 대한 위기감, 가출할 수 있다는 의혹, 금전사용에 대한 의혹 등 근본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는데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김상임, 2004). 결혼이민여성의 대다수가 취업을 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배우자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녀양육보다는

취업에 더 관심을 쏟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부부갈등과 2세 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역시 이주여성과 배우자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데, 자녀를 엄하게 키워야한다는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이주여성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이주여성과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이러한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는 부부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윤형숙, 2004a). 현모양처를 기대하는 한국남성들과 돈 벌어 친정에 보내고자하는 결혼이민여성인 경우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결혼동기를 갖고 출발하면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채옥희, 홍달아기, 2008). 이와 같이 결혼이민여성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남성들은 계층적,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과 세계화의 짐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관계강화 훈련이나 관계증진 교육이 필요하다.

2) 시부모 및 친인척 문제

결혼이민여성 다수가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시댁의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며느리로서의 전통적 의무를 강요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오남, 2006). 시부모와의 갈등은 결혼이민 여성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의 57.7%이상이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나 사고방식, 생활방식, 종교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시부모와의 관계가 더 힘들며 친척중 시누이와의 갈등이 큰 것(홍달아기, 채옥희, 2006)으로 나타났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오해의 정보를 주거나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 두려고 하며, 시부모가 가정경제권을 장악하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것, 남존여비적인 태도를 갖고 남성은 하늘, 여성은 땅 무조건적인 아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키며, 시집식구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경우 욕을 하거나 심하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나라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문화만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경향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 일례로 임신이나 출

산 후에 미역국과 한국음식만 먹기를 강요하는 경우 며느리들은 힘들어 한다.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하거나 지역사회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집밖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시부모와의 갈등 요인(채옥희, 홍달아기, 2007)이다.

3) 자녀 문제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아직은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많아 이들 가족의 모.자녀 간의 친밀감과 결속력은 높은 편이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60-70%정도 되며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05). 결혼이민여성 자녀의 문제내용은 지능이 낮고 말을 못한다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다가 39.1%,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가 36.9%로 다른 문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었다(전라남도, 2006). 특히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해 적절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하여 언어습득지체현상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임경혜, 2004).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엄마의 출신국이나 인종에 따라 놀림이나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국내 이주여성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로 거주 지역별로 보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특성은 도시지역이 62.5%로 농촌지역의 31.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다는 특성은 농촌지역이 42.1%로 도시지역의 25.0%보다 높게(보건복지부, 2005) 나타났다. 이처럼 엄마로 인한 교육기회의 상대적 박탈, 부정적 사회인식 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원만한 또래관계형성과 학업성취 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아동기 우울과 불안장애의 원인이 된다. 특히 소외된 아동들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현실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거나 탐닉하게 되며 자신들의 내적 불안정에서 오는 긴장감을 방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TV중독, 컴퓨터중독에 빠지기도 한다(전라남도, 2004). 이밖에 결혼이민여성은 공통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려움 중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과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응답했는데, 취학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

이 주된 문제로 제기(김오남, 2006; 보건복지부, 2005; 전만길, 2005)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부, 시부모와 친척, 자녀 등 대상별 문제를 고찰해본 결과 다문화가정이 갖는 문제는 단순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어느 한 대상만을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가족을 통합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이해를 통한 자발적인 가족통합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Ⅲ.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가족원들의 상호간이해와 친밀감 형성, 가족관계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수합,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 내용구성의 주제 도출을 위하여 문헌 고찰과 설문지를 통해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사업수행과정에서 보고 느꼈던 점들을 수집하였다. 설문은 크게 가족통합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가족전체, 부부, 자녀, 시부모 등 대상을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경험했던 교육내용 중에서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여 자유롭게 서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종합하여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그 밖의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은 교육의 형태는 집합이나 캠프가 효과적이며 체험을 통한 교육이나 그들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진행상의 건의는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가족들 간에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영역별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대상자들이 어떠한 수준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혼 전에 가족들이 알아야할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즉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결

혼과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상호간의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 가족들에 대한 성격 파악을 통한 이해와 친밀감 강화 등을 교육내용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밖에 교육대상별 즉 부부, 시부모, 자녀 등에게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가족통합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대상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영시킴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나 사전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여 불 때 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남편, 시어머니, 자녀를 위한 가정생활의 총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당일(8시간), 숙박형(1박2일)의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당일에 수행되는 가족통합교육은 가족모두가 마음껏 즐거서 행복이 배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숙박형 교육은 가족 모두 함께 하는 교육과 세대별 내용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성인대상교육, 아동대상교육으로 전개하였다.

#### 1. 프로그램의 목적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의 평등함과 가족 간의 이해를 돕는다.
- (2)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 (3) 가족 간의 친밀감증진을 돕는다.
- (4)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 전체의 마음열기를 유도하여 가족으로서의 든든함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2) 가족이 함께 하면서 공동의 학습과 활동 기회를 가짐으로써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원간의 적응, 친밀감 증진,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 (3) 공동작업과 활동을 통해서 신뢰를 확인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 (4) 가족 전체가 모여서 집단상담의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5) 현장에서 온 가족이 있는 곳에서 직접 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색함을 줄이고 실제생활에서의 적응을 쉽게 한다.

〈표 1〉 가족통합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대상	교육내용	
	원하는 교육내용	경험한 것 중 좋았던 교육내용
가족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사회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국적과 문화차이로 인한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li> <li>- 결혼이민자의 한국가족이해</li> <li>- 한국인의 결혼이민자나라 이해하기</li> <li>- 국적취득 및 다문화 인식교육</li> <li>-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고취</li> </ul> </li> <li>■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은 왜 필요한가?</li> <li>-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li> <li>- 각 가족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 찾기</li> </ul> </li> <li>■ 가족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유형 이해</li> <li>- 가족의 강점·약점 알기</li> <li>- 가족 간의 기본예절교육, 호칭사용법</li> </ul> </li> <li>■ 가족관계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만의 공동놀이배우기</li> <li>- 가족사랑 사진 찍기</li> <li>- 스토리 북 만들기</li> <li>- 가족사랑 편지쓰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을 통한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li> <li>■ 자녀수련회</li> <li>■ 가족의 타임캡슐</li> <li>■ 가족장기자랑</li> <li>■ 가족나들이</li> <li>■ 체험캠프</li> <li>■ 엄마나라탐사</li> <li>■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li> <li>■ 가족운동회</li> <li>■ 부부10계명만들기</li> <li>■ 가족달력만들기</li> <li>■ 소망나무</li> <li>■ 야외체험활동</li> </ul>
부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성교육</li> <li>- 남·여의 차이</li> </ul> </li> <li>■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의 가정경제설계</li> <li>- 부부간의 경제관념에 대한 이해</li> </ul> </li> <li>■ 부부관계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이나 수기에 의한 편지</li> <li>- 배우자의 장점칭찬</li> <li>- 배우자가족 이름쓰기, 음식 만들기</li> </ul> </li> <li>■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학습지도요령</li> <li>- 연령별 자녀양육법(다문화가정 만의교육경험공유)</li> <li>- 자녀들의 가치관형성</li> </ul> </li> </ul>	
시부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며느리나라 이해하기(다른 나라도 함께하여 문화차이를 알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주생활(식생활체험)</li> <li>- 전통과 풍습(출산, 인사, 가족관계...)</li> <li>- 경제생활</li> </ul> </li> <li>■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해결방법</li> <li>- 웃음치료</li> </ul> </li> <li>■ 관계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며느리에 대한 인식개선</li> <li>- 노부모성인자녀 관계</li> <li>- 자존감향상훈련</li> <li>- 양육자로서의 시부모</li> <li>-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li> <li>- 시부모와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풀이 발언대</li> <li>■ 우리 며느리 최고(자랑하기)</li> <li>■ 가족사진 만들기</li> <li>■ 생각나누기(의사소통방법)</li> <li>■ 시부모역할극</li> <li>■ 손발마사지</li> <li>■ 효 사랑나눔터</li> <li>■ 가족관계의 중요성(가족의 존재이유와 관계형성)</li> <li>■ 다문화이해교육</li> <li>■ 터놓고 이야기합시다.(간접경험)</li> </ul>

2. 프로그램설계의 기본 방향

- (1) 교육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 (2) 다양한 환경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특별한 전문가가 요구되는 내용은 되도록 배제한다.
- (3) 효과는 좋으나 실행이 어려운 내용은 제안을 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 (4) 다양한 형태로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융통

성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3. 가족통합 프로그램 운영세부지침

- (1) 교육내용 지침
  - ① 주제와 내용이 일관성있고 문제해결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 ②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③ 실제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해 준다.
- ④ 교육내용과 방법은 교육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준과 요구에 부응해야한다.
- ⑤ 가족 동시교육의 장점 특히 상호 피드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2) 학습 진행방법

- ① 수업은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② 도입단계에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③ 의견제시를 격려하되 다수의 참여를 유도한다.
- ④ 주요 내용을 지침, 활동목록 등으로 요약화하여 제시한다.
- 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해결책 찾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⑥ 마무리 단계에서 강의내용을 요약해주고 실천항목들을 정리해줌으로써 후속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⑦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요구도가 높은 한국사회의 적응과 가족관계 향상을 중심으로 하되, 대상별 분리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단 가족 공동의 교육은 반드시 통역을 활용한다.

(3) 교육환경 조성

- ① 어린 자녀를 위해 안전한 탁아 공간 확보 및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 ② 동시교육 및 조별활동을 위하여 강의실 3개소, 활동실 5개소 이상 확보한다.
- ③ 상담교실, 레크리에이션 시간 등에 전문가를 확보

- 한다.
- ④ 가족협동 활동을 위한 기자재 및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 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선물 등 촉진물이 필요하다.
- ⑥ 교육시간동안 자유로운 활동과 참여를 위해 유니폼을 입도록 하든지 참여복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한다.

IV. 프로그램 구성과 실제

1.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본 프로그램 참여자는 도농복합형 도시인 IS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인의 평균연령은 23.5세이고, 남편의 연령은 40세로 약 17세정도의 연령차를 보였다. 12사례 중에서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은 3가정이었고 시모만 계신 가정은 9가정이었다. 재혼하여 중학생의 전처자녀를 둔 가정이 한 가정 있었다. 결혼의 형태는 한 사례만 연애결혼을 하였으며 11사례는 결혼중매회사를 통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일용근로자가 3명, 회사원이 2명, 7명이 농업으로 가장 많았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다문화가족관련 종사자들의 요구조사결과 다문화 이해, 가족갈등, 의사소통, 가족 간의 기본예절에 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들의 요구는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가족갈등, 의사소통, 생활방식의 차이의 순으

〈표 2〉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사례 번호	연령 및 관계						부모동거여부	직업	결혼형태
	시부	시모	부인	남편	자녀1	자녀2			
1			26	40	2	1	비동거	농업	중매회사
2		57	24	34	2		동거	회사	중매회사
3	75	70	31	40	3		동거	회사	중매회사
4		67	28	43	3		동거	농업	중매회사
5		59	21	30	1		동거	일용근로	중매회사
6		불참	22	39	2		동거	일용근로	중매회사
7		63	25	41	2		동거	농업	중매회사
8	78	73	30	42	2		동거	농업	중매회사
9		66	24	38	2		동거	농업	중매회사
10			26	46	1		비동거	일용근로	중매회사
11	70	71	21	40	임신중		동거	농업	연애결혼
12			29	49	14(전처의자녀)		비동거	농업	중매회사



로 응답하였다. 선행연구(안현정, 2003; 양순미, 2006; 장온정, 2007; 홍달아기, 채옥희, 2006)고찰에 의하면 의사소통, 문화차이의 이해, 친인척 관계갈등, 서로 다른 가치의 차이 등 차이에 관한 이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족통합교육내용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화합의 장으로 프로그램 참여자간의 친밀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 통합적 놀이와 게임을 통해 화합을 유도하게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의 장으로 화합을 유도한 후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문화 이해와 가족갈등, 표현방법을 내용으로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희망의 장으로 가족 간의 서로에 대한 기대와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8시간의 당일형과 1박2일의 숙박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합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 회기는 120분을 기준으로 3단계교육으로 편성하였고 내용구성은 강의 및 발표, 게임을 통한 이해, 가족협동활동, 관계개선작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대상의 크기는 결혼이민여성가족 15가족으로 4인 기준 총 60명 내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오전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2시에 종결하는 형식과 오후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6시에 종결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족통합교육은 삼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너무 긴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무리가 있다. 또한 불거리를 제공하여 가족여행과 유사한 기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참여가족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 3. 프로그램의 실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고, 가족 간 소통의 기술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서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있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방법에서는 참여대상이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표 3>의 당일형 프로그램은 크게 화합, 이해, 희망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족통합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화합의 장에서 ‘마음을 열면 기쁨이 가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낮은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어색함을 감소시키고 일체

감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들이 상의하여 가족별칭을 짓고 그 이름을 불러주어 가족의 통합감을 주도록 한다.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중간에 가족들의 포즈를 찍어서 칼라프린트를 하여 복도나 뒷벽에 전시를 해놓는다. 사진을 출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마지막 희망의 장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표현된 사진에 스티커 투표를 하여 종결 시에 시상을 하고, 사진틀을 준비하여 사진틀에 넣어 전체 가족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해의 장에서는 가족 간의 문화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강의 후에 퀴즈를 내어 복습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여 참여자의 흥미를 높인다. ‘동요 부르기’는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불리워지는 간단한 동요를 선택하여 외국발음을 한국어로 표기하여 온 가족이 함께 부른다. 이때 각국의 대표를 뽑아 선창을 하게 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연습 후 서로 다른 언어로 부르게 함으로써 타국의 언어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실감하여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미고사 인사법’은 각국의 발음으로 모두 연습하게 하여 실제 표현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혹은 쑥스러워서 하지 못한 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때 비언어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게하고 그 말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느낌을 나누도록 한다. ‘손 마사지’는 실제 마사지 전문가를 통해 지식도 전달하고 여기에 접촉의 기적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족들과의 파트너를 바꾸어 가며 시부모와 며느리, 아들과 부모님, 자녀 등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느낌을 나눈다.

마지막 희망의 장에서는 ‘희망의 배 띄우기’는 가족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희망의 열매달기’는 가족의 미래설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 서로의 생각차이를 알게 하는 작업이다. 이 두 작업은 유사한 희망을 다루고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된다. ‘희망의 배 띄우기’는 여러 그림도구들을 제공하여 색칠과 내용을 가족들이 상의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것으로 완성한 후 그림에 대한 설명과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때 가치나 희망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생각하기 힘들어 할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해 보조봉사자들이 옆에서 힌트를 줄 수도 있으며, 미리 몇 가지를 제안해줄 수도 있다.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발표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훗날의식에서는 ‘서로의 마음 전달하기’로 프로그램 참여 후 달라진 자신의 가족에 대한 느낌

〈표 3〉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 : 당일형

〈가족통합교육 : 8시간프로그램〉 사랑은 가슴을 타고			
목표	1. 가족 전체의 마음열기를 유도한다. 2.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도록 한다. 3. 한 가족으로서의 든든함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계	내용	방법	시간
내용	1. 프로그램소개 및 화합의 장 1) 사전조사 및 진행자 자기소개 2) 강의 참여에 대한 감사와 격려 강의의 개요 소개 2.마음을 열면 기쁨이 가득 1) 즐거움으로 하나 되기(레크레이션) 2) 별칭짓기 3) 가족사랑 포즈로 사진찍기	레크레이션을 잘 구성한다.(별칭으로 소개하기, 머리위로 공넘겨주기, 가족대항 떨기대회, 핸들커버통과하기 등등)  별칭의 예를 제시해줄 것 ('나무꾼과 선녀', '영이와 철수'와 같이 쉽고 친근한 것으로) 사진을 프린터 출력하여 뒤면에 부착	120분
	휴식		10분
	3. 알고나니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문화 당신 문화 1) 문화이해하기(명절, 관습, 호칭 등) 2) 동요 부르기(한국어, 외국어) 3) 미고사 인사법-배우고 표현하기 4. 손 마사지(서로의 접촉을 통해 느낌)	ppt를 통한 강의  ppt. ox판 외국발음프린트 외국발음프린트 수건, 오일 배경음악: 어머니은혜	30분  20분 20분 20분 30분
	휴식		10분
	5. 희망의 나라로 1)희망의 배 띄우기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 2) 희망의 열매달기(선택사항) 6. 서로의 마음 전달하기(촛불의식) 7. 하루를 마무리하며(활동영상보기) 8. 종결식(가족사랑사진 컨테스트) 9. 사후평가	4절. 크레용  초, 불 부착관, 테이프	60분  30분 10분 20분
준비물	프린터(사진인쇄용종이), 4절켄트지, 크레용, 집착 테이프, 수건,오일,초,라이터, 동요와 인사법 프린트지, ship판(내용), hope판, 문구, 씨디플레이어 동요씨디(나비야,곰세마리,어머니은혜),엘씨디,스크린,캡코더,사진관,스티커,명찰,수료식때 동영상, 상품		

을 한 명씩 표현하도록 한다. 촛불을 붙이는 과정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글을 한국어와 외국어로 한 줄씩 교대로 낭독한다.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이 다양하므로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의 언어를 하나만 선택하여 하는 것이 분위기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 '활동영상보기'는 현장에서 편집이 불가능하므로 촬영을 할 때부터 15분 정도의 동영상을 계획하여 촬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보여준다. 하루 동안 웃고 행복해 하였던 순간들을 되돌려 보는 것은 가족들에게 여러 의미를 줄 수 있다. 종결식에서 주는 가족사진은 집에 돌아가서도 좋았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의미있는 선물이 된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당일형 프로그램에 세 그룹 활동을 포함시켜서 교육의 목적에 따라 참여그룹을 구성한다. 1박을 하는 첫째 날에는 부부, 시부모, 자녀로 그룹을 나누어 별도의 교육을 한다. 부부교육에서는 사랑의 언어나 성교육으로 구성하고 시부모교육은 역할극을 통한 며

느리와 시부모입장 이해하기, 수다 떨기 등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마음을 서로 나누게 함으로써 며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자녀교육은 미운오리 새끼와 같은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화를 선택하여 동화구연을 해주고 의미부여와 함께 스스로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어머니나라 국기를 그려서 엄마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한다. 2일째 세 그룹 활동은 시부모와 남편, 결혼이민여성, 자녀그룹으로 구분하여 시부모와 남편그룹에게는 가족을 두고 시집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면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진행한다. 결혼이민여성그룹에게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한국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한 후 '며느리들의 수다방'을 통역을 동반하여 함께 나눔으로써 집단상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한다. 자녀그룹은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 봐요'를 통

<표 4>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 : 숙박형

첫째날		둘째날	
시간	활동 내용	시간	활동 내용
10:00		07:00~08:00	기상 및 운동
10:00~10:30	사전조사, 소개 및 친교,	08:00~09:00	아침식사
10:30~12:30	문화향기 속으로	09:00~11:00	세 그룹 활동 (시부모, 남편, 결혼이민여성, 자녀)
12:3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희망의 장
13:30~14:30	화합의 장(레크리에이션)	11:00~12:30	(가족통합교육) 사후평가
14:30~16:30	이해의 장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놀이	12:30~14:00	점심식사
16:30~17:00	휴식 및 간식	14:00~	해산, 혹은 불거리 탐방
17:00~19:00	동요 부르기와 미사교 인사법 (각 국의 언어로)		
19:00~20:00	저녁식사		
20:00~21:00	세 그룹 활동 (부부, 시부모, 자녀)		
21:00~	가족 친목시간 및 취침		

해 염색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놀이치료의 기법을 이용한 신문지 찢기를 통해 마음 놓고 자신을 떨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다. 이때 세 그룹 활동은 각 그룹이 동시에 다른 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오전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2시에 종결하는 형식과 오후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6시에 종결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숙박형의 교육내용은 당일형의 내용을 공유하면 된다. 가족통합교육은 삼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너무 긴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무리가 있다. 또한 불거리를 제공하여 가족여행과 유사한 기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참여가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 VI. 프로그램 평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양적평가로는 교육 전 사전조사와 종결 후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질적평가로써는 프로그램을 종결 후 각 대상에 따라 인터뷰를 하여 평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에 의한 질적평가는 참여자의 수준과 입장이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설문평가에 의해서는 본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제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얻기 위해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설문에 의한 평가는 자아존중감척도를 통해 사전사후 조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족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족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며 각자의 자아존중감의 크기는 의사소통방식에 영향을 주고(사티어, 1975/2000),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대인관계도 원만해

진다(안창현, 김진이, 2008)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교육 후 자아존중감을 평가척도로 사용하였다. 사전사후조사는 결혼이민여성과 남편에게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차안이 가장 분산되지 않은 안정된 장소라고 판단되어 교육장소로 이동 중에 교육받은 전공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생각의 정도와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어주경(1999)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척도로 ‘정말 그렇다’가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터뷰에 의한 것은 다음 5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은 나와 내 가족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는지?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는지? 프로그램 참여 후 무엇을 느꼈는가?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참여를 권하고 싶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평균이 사전조사(2.84)에 비해 사후조사(3.26)에서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나타냈다. 사전조사결과는 남편(3.10)이 부인(2.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조사결과도 남편(3.40)이 부인(3.2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인이 2배정도의 증가율을 보여 교육참가로 인해 남편과 부인 모두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나 부인의 자아존중감이 더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타국에서의 생활자체가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 그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평균(사후3.32)을 넘는 정도를

(표 5)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조사결과 (N=남편:12, 부인:12)

내용	사전조사 평균	사후조사 평균
	남편(부인)	남편(부인)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65(3.08)	3.67(3.34)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15(2.89)	3.16(2.89)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98(2.74)	3.18(3.15)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3.76(1.88)	3.88(2.8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96(1.86)	2.98(3.5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01(3.35)	3.25(3.55)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2.88(2.15)	3.12(3.05)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3.69(2.99)	3.88(3.73)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86(2.32)	3.86(3.26)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3(2.65)	3.05(2.88)
총계	3.10(2.59)	3.40(3.23)

\*역코딩

보여 이들에 대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남편과 부인 모두 교육 전과 교육 후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은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문항으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감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해 잘 할 수 없었고 칭찬받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에서도 모두 점수의 증가를 보여 자신에 대한 존중의 욕구가 증진되었으며 자신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부부의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 결혼안정성(박영화, 고재홍, 2005; 정은희, 2004)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며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안창현, 김진이, 2008)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검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의 점수는 평균점수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아서 이들을 위한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프로그램 종결 후 인터뷰에 의한 의견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고, 이제는 며느리 나라말로 인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나만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시어머니들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 점을 느꼈다고 하였다. 말이 안통해서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지만 오늘 함께 있어보니 참 소중한 우리식구라는 것이 더 느껴져 예쁜 마음이 막 솟는다고 기뻐하였다. 시아버지들도 아들내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와 가까이 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더 들었다고 말했다. 나도 외국어를 배워보니 발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웃었는데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남편들은 부인나라의 문화적 우수함과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하며 자녀들이 컸을 때에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남편과 시부모를 위한 상호문화이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신경희, 2007) 문화 간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부간 몰이해와 갈등을 유발(김오남, 2006)시키므로 가족 간 문화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 며느리 또한 ‘희망의 배 띄우기’를 하면서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으며 더 착한 아내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참석자들도 감동을 함께 하였다. 남편들은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부인과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집에서 하지 못하는 작업을 통해 책임감과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이런 교육이 있으면 꼭 참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겠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시간이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의 효과는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다. 개선해야 할 점은 프로그램 시간은 조금 빠빠한 느낌이 있었으며, 임신부의 경우 긴 시간동안 앉아 있는 것이 무리가 되었고 아이들이 잠투정을 할 때 힘이 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통합교육에서는 쉴 수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조용한 공간과 장난감, 여벌의 옷과 기저귀 등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농촌 결혼이민자가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신경희, 2007)에서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하듯이 다문화 가족의 상호적응을 위해서는 가족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대상별 지지그룹의 활동으로 서로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고, 가족 간 소통의 기술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서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단일형과 숙박형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화합, 이해, 희망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족통합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화합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낯선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어색함을 감소시키고 일체감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해의 장에서는 가족 간의 문화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청각 자료를 잘 이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모국어로 발표하도록 하고 한국어로 통역하도록 하여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사지’와 ‘미고사인사법’이나 ‘동요부르기’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이해하고,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느낌을 나누게 하는 체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희망의 장에서는 가족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서로의 생각차이를 알게 하는 작업이다.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결과는 각 문항 모두 점수가 증가하여 자아존중감 증진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은 다문화가정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고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된다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의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결론과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의 가족통합교육은 전체 가족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참여대상이 된다. 따라서 진행자는 진행 중 참여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휴식시간에 대한 안내와 자녀들에 대한 안전, 어르신에 대한 예의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참여대상자의 모국이 같은 동질성을 갖는다면 교육의 효과성이 높겠지만 그러한 구성을 갖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역요원을 활용한다. 특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교육에서 중요한 영

향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통역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진행시 통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배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하여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내용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레크리에이션의 운영이 전체 프로그램의 역동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전문가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므로 직접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달에 효과적이며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도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역할바꾸기를 하여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시부모대상 교육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부모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 동안 긍정적인 점과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고부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이와 같은 융통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통합교육에서 강조할 점은 가족여행과 교육과 재미를 프로그램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가정환경과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통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풀이 형성되어서 전문적이고 융통성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다양한 출신국가를 고려하여 국가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나 가족들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통역을 동반한 혼합형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통해 볼 때 프로그램의 개발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의 장이 많이 열리고 많은 참석이 유도되어야 한다. 다섯째, 집단상담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도자가 있는 자조모임을 가족단위로 하여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해줌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가족 간의 오해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세계화되어 가는 사회에 맞추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문화 가

족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통합과 다문화 가족들의 자긍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다양한 가족문화 이해 프로그램 시행과 나아가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발전을 위해 다른 문화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결혼이민여성.

## 참 고 문 헌

- 국제결혼현황. (2009, 12, 16). **e나라지수**. 자료검색일 2009, 12, 20, 자료출처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김민정. (2009). 국제결혼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 김상일.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창립3주년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7-48.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결정요인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희주, 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35, 33-66.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자기효과와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9(1), 65-83.
- 버지니아, 사티어. (1975). **한국버지니아사티어연구회**. 김영애 옮김 (2000). **사티어모델**.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프로그램. 2008-결혼이민자-31.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별처럼 빛나는 농촌다문화가족 가족교육프로그램. 2008-결혼이민자-35.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대회**.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 서형순. (2009).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저익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발표회자료집. 보건복지부.
- 신경희. (2007). 농촌의 결혼이민자가정 교육프로그램개선을 위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현, 김진이. (2008).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응집성, 적응성과 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95-114.
- 안현정. (2003). 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어주경. (1999). 저소득층 가족의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윤자. (2007).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패러다임 모색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1(4), 73-92.
- 윤희숙. (2004a). 외국인 출신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6.
- 윤희숙. (2004b).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주여성 가정폭력 시달려. (2004). **전라남도 여성정책과**. 자료검색일 2009, 10, 11, 자료출처 <http://gihotline.org/zboard/>
- 이태옥.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가족과 사회적지지방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운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라남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사례조사보고회 자료집.
- 전만길. (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옥희, 홍달아기. (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채옥희, 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 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1-12.

-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지*, 13(4), 85-101.
- 통계청. (2009). 2008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 한건수. (2008). 2008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전국대회. 보건복지가족부.
- 홍달아기, 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 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Constable, N. (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mons, L. A. (2001).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ional Faminism*, Unpublished doctora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접 수 일 : 2010. 01. 13.

수정완료일 : 2010. 01. 26.

게재확정일 : 2010. 01. 28.